
기획논문

1477년 1월 5일, 낭시 전투

— 역사적 사건의 기록과 기념* —

이 해 민

- | | |
|-----------------------|-----------------------|
| I. 머리말 | III. 낭시 전투에 대한 평가와 기념 |
| II. 낭시 전투의 배경과 사건의 전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1477년 1월 5일의 낭시 전투는 부르고뉴 공작 샤를 용맹공이 로렌 공작 르네 2세와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단순히 봉건영주들 사이에 벌어진 국지적인 전투가 아니었으며, 부르고뉴 공국, 로렌, 스위스, 프랑스, 신성 로마제국 등이 얽힌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낭시 전투와 샤를 용맹공의 죽음은 당대에는 승리자인 르네 2세가 자신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기념의 대상으로 삼았고, 후대에는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부르고뉴 공국과의 연속성 및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념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에는 민족과 국가 형성의 기점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프랑스 로렌 지방의 극우파들이 이민자 축출과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며 낭시 전투를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61-A00018).

I. 머리말

2017년 1월 5일 오후 6시 30분 프랑스 로렌 지방의 낭시(Nancy)에서는 낭시 전투 54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낭시 전투는 1477년 1월 5일 로렌 공작 르네 2세(René II de Lorraine, 1451-1508)가 부르고뉴 공작 샤를 용맹공(Charles le Hardi, 1433-1477)¹⁾에게 승리를 거둔 사건을 말한다. 낭시에서는 40년 전부터 도심의 크루아드부르고뉴 광장(place de la Croix-de-Bourgogne)에서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오를레앙의 잔다르크 축제처럼,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조촐한 규모로 지방의 역사적 기념일로 정착된 것이다. 유럽통합의 시대에는 과거 19-20세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시대에 유럽의 국민국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던 낭시 전투라는 사건이 더 이상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년에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고 올해 프랑스 대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극우파 정당이 프렉시트(Frexit)를 주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지방 극우파가 낭시 전투를 기념하면서 제시하는 정치 담론 때문에 이 사건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 로렌 지방의 극우파 인사들은 1월 5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1) 부르고뉴의 마지막 공작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무모한 샤를(Charles le Téméraire, Carlo il Temerario)”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반면에 벨기에에서는 ‘용맹한’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영어, 네덜란드어, 독일어권에서도 모두 샤를에게 ‘용맹한’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다(Charles the Bold, Karel de Stoute, Karl der Kühne). 벨기에의 역사학자 장 마리 코시는, 유독 프랑스에서만 부르고뉴의 마지막 공작을 “무모공(無謀公, le Téméraire)”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의 민족주의적 가치평가가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Jean-Marie Cauchies, *Louis XI et Charles le Hardi. De Péronne à Nancy(1468-1477): le conflit*(Bruxelles: De Boeck Université, 1996), pp. 147ff. 영미권 학자들 중에서는 캐서린 에머슨이 Charles le Hardi라는 명칭이 “중립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영어식 표현인 Charles the Bold보다는 프랑스식 표기를 사용하였다. Catherine Emerson, *Olivier de La Marche and the Rhetoric of Fifteenth-century Historiography*(Rochester, N.Y.: Boydell Press, 2004), p. 2.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년 낭시에서 기념식 개최를 주도 하면서 이민자 축출 및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540년 전의 낭시 전투가 오늘날의 이민자 문제나 유럽연합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낭시 전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며, 로렌의 극우파는 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가? 이들은 왜 낭시 전투를 프랑스의 전국적인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날 프랑스 극우파는 1월 5일이라는 날짜를 망각 속에서 건져내어 왜곡된 프리즘을 통해 역사적 기억으로 박제하고 기념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1477년 낭시 전투라는 국내의 학계나 일반인들 모두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실제 사건의 추이 및 결과, 그리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 현상에 대한 평가와 기념 방식의 변화를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477년의 낭시 전투는 외견상으로는 부르고뉴 공작과 로렌 공작 사이에서 일어난 지역 영주들의 국지적인 전투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유럽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치 세력 및 공동체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사건에는 부르고뉴와 로렌 외에도 스위스, 알자스, 이탈리아(특히 밀라노), 신성 로마제국, 프랑스 등 여러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낭시 전투의 배경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낭시 대학에서 출간한 『낭시 전투 500주년 기념 논문집』에서처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²⁾ 다만, ‘낭시 전투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글에서 다수의 주체와 복합적인 주체들을 모두 다루기는 힘들기에 필요하다면 다른 지면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낭시 전투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 중 부르고뉴 공작의

2) *Cinq-centième anniversaire de la bataille de Nancy(1477)*, Actes du Colloque organisé par l'Institut de recherche régionale en sciences sociales, humaines et économiques de l'Université de Nancy II, Nancy, 22-24 septembre 1977(Nancy: Annales de l'Est, 1979).

영토 확장 정책을 중심으로 낭시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낭시 전투는 물론이거니와 중세 후기의 부르그뉴에 대해서도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 다수의 국내 독자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배경 설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낭시 전투 자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당대와 후대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방식 및 그 역사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낭시 전투의 배경과 사건의 전개

프랑스에서는 낭시 전투를 근대 프랑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하곤 한다.³⁾ 피에르 프레데릭스(Pierre Frédéric)는 낭시 전투가 벌어진 1월 5일을 “프랑스를 만든 중요한 30대 사건이 일어난 날(Trente journées qui ont fait la France)”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477년 1월 5일은 부르그뉴 가문이 한 세기 동안 쌓아올린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날이었다. 테메레르[샤를 용맹공]의 죽음은 당장에는 독립적인 국가의 소멸, 다시 말해서 “중간 지대에 위치한 로타링기아 왕국”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후 프랑스와 신성 로마제국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였다.⁴⁾

갈리마르(Gallimard)사에서 출간된 프레데릭스의 저서 원본에 표지 위에 두른 빨간 색 띠지에는 “La fin de l'Europe médiane(유럽 중간 지대의 종말)”이라는 하얀색 글씨가 크게 박혀 있다. 바로 낭시 전투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⁵⁾ 또한, 프레데릭스는 낭시 전투와

3) Michel Parisse, “IV. La Lorrainae-Autour de dates exemplaires, douze historiens montrent le rôle d'autant de régions dans l'identité française”, *Le Monde*, le 18 juillet 1983.

4) Pierre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Paris: Gallimard, 1966), p. 222.

5) 필자가 구입한 1966년판 중고 서적은 이 책의 전(前) 소유자가 비닐로 표지를

테메레르의 죽음을 대군 영지(大君領地, apanage)인 부르고뉴가 주인 없는 땅이 되어 프랑스 국왕에게 “간단하게 반환(simple retour)”될 수 있게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로렌 출신의 근대사가 르네 타브노(René Taveneaux)는 『낭시 전투 500주년 기념 논문집』의 서문에서 낭시 전투 이후 프랑스의 동질성(unité)이 강화되었고, 프랑스와 제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제후령)들의 통합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프랑스와 제국이 직접 접촉하며 이후 수 세기 동안 유럽의 정세 판도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⁶⁾ 이들이 언급한 프랑스와 제국 중간 지대에 위치한 “로타링기아” 혹은 제후령들의 집합체란 바로 부르고뉴 공국(公國)을 말한다.

1. 부르고뉴 공국의 형성과 영토 확장: ‘공작령’에서 ‘공국’으로

중세 후기에 프랑스 발루아 왕실 방계 가문의 부르고뉴 공작들이 다스린 영역을 “부르고뉴 공국(État bourguignon)”이라 부르곤 한다. 부르고뉴 공국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국가들” 중 하나로서 근대적인 국민국가(État-nation)나 주권국가(État souverain)가 아니라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제후국가(État princier) 혹은 영방국가(État territorial)였다. 부르고뉴가 15세기에 강력한 제후국의 위상을 지니게 된 데에는 발루아계 부르고뉴 공작들, 특히 필리프 선량공(Philippe le Bon, 1396-1467)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지를 크게 확장하였고, 통치 체제 정비와 문화 진흥 정책 등을 통해 부르고뉴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15세기 후반에 ‘부르고뉴(Bourgogne)’라는 지명은 모호성과 다의성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고유명사는 단순히 오늘날의 프랑스

튼튼하게 싸놓아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며, 띠지까지도 비닐 커버 아래 잘 보존되어 있다.

6) René Taveneaux, “avant-propos”, *Cinq-centième anniversaire de la bataille de Nancy*, p. 5.

부르고뉴 지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뉴 공작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며 한데 합쳐나간 광범위한 영토를 통칭하기 때문이다. 필리프 선량공의 아들인 샤를 용맹공의 시대에 부르고뉴 공국의 영토는 북부 지방의 플랑드르, 아르투아, 피카르디, 에노, 솜 강 유역의 영토, 브라반트 공작령, 홀란드, 젤란드, 겔드르로부터 남쪽의 부르고뉴 공작령, 부르고뉴 백작령, 느베르 백작령, 그리고 북부와 남부 영지의 중간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공작령을 포함하는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도판 1).⁷⁾

‘부르고뉴’라는 지명의 기원은 중세 초에 존재했던 부르군디아 왕국(*regnum burgundia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세기 초에 부르군디아인들이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이 왕국은 534년에 프랑크 왕국에 합병되지만, 이후에도 ‘부르군디아 왕국’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종종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다. 카롤링거 시대에는 843년 베르됭 조약으로 옛 부르군디아 왕국에 해당되는 지역이 서프랑크 왕국과 로타링기아 왕국 사이에서 분할되었고, 이후 그 일부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⁸⁾ 카페왕조 시대 이후 부르고뉴의 명칭을 쓰는 영지로는 ‘부르고뉴 공작령’과 ‘부르고뉴 백작령’이 있었다. 부르고뉴 공작령은 부르군디아의 서부 지역으로 오늘날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 해당되며, 카페 왕조 이래 프랑스 왕실의 대군 영지였다. 한편, 부르군디아 동부 지역의 부르고뉴 백작령은 오늘날의 프랑슈콩테(*Franche-Comté*) 지방에 해당된다. 부르고뉴 백작령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부르고뉴 백작은 독일 궁중백(宮中伯, *comte palatin*)의 지위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14세기 카페 왕조 시대에 부르고뉴 백작령은 혼인 정책의 결과 프랑스 왕실의 지배를 받았

7) Cf.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Wim Blockmans and Walter Prevenier, *The Promised Lands. The Low Countries under Burgundian Rule, 1369-1530*(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를 참조할 것.

8) Bertrand Schnerb, *L'État bourguignon, 1363-1477*(Paris: Perrin, 2005[1999]), pp. 11-13.

1361년에 카페 가문의 마지막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드 루브르(Philippe de Rouvres, 1346-1361)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부르고뉴 백작령은 아르투아 백작령과 더불어 필리프 드 루브르의 왕고모인 마르그리트(Marguerite de Bourgogne, 1309-1382)에게 상속되었다.⁹⁾ 한편 같은 시기에 대군 영지인 부르고뉴 공작령은 프랑스 왕령지로 귀속되었는데, 대단히 강한 지방자치주의(particularisme) 성향을 띠고 있었던 부르고뉴에서는 프랑스 국왕의 지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장 2세(Jean II le Bon)는 부르고뉴 공작령을 프랑스 국왕의 다른 영지와 통합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할 것을 약속하였다.¹⁰⁾ 1363년에 장 2세는 막내아들 필리프, 일명 필리프 용맹공(Philippe le Hardi, 1342-1404)에게 부르고뉴 공작령을 대군 영지로 하사했다. 이때 국왕은 대군 영지를 남게 후손만 물려받도록 규정하던 당대의 관행과는 달리 필리프가 물려받은 대군 영지는 부르고뉴 지방의 관습법에 따라 남녀구별 없이 종신으로 보유하도록 하였다.¹¹⁾ 그 이유는 당시 아직 미혼이라 자녀가 없었던 필리프가 요절할 경우 나바르 왕이 부르고뉴 영지 계승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¹²⁾ 따라서 부르고뉴 공작령은 프레데릭스가 생각했듯이 일반적인 대군 영지는 아니었고, 남시 전투 이후 그리

9) 필리프 5세와 왕비 잔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로서 플랑드르 백작과 혼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큰 딸(부르고뉴 공작부인)의 후손이 단절되자 작은 딸(플랑드르 백작부인)이 영지를 상속 받은 것이다.

10) Jean Richard, "Le destin des institutions bourguignonnes avant et après Charles le Téméraire", *Cinq-centième anniversaire de la bataille de Nancy*, p. 294.

11) 대군 영지는 원래 장자가 아닌 왕자들이 왕위 계승을 정식으로 포기하는 대신 받는 영지를 말한다. 아르투아, 푸아티에, 앙주와 맨의 영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봉건법상으로 대군 영지를 소유한 왕실 방계 가문이 후손을 얻지 못해 단절될 경우 이 영지는 왕실에 다시 귀속되었다. 다만, 14세기 초까지는 아들의 부재가 대군 영지의 왕실 귀속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302년의 아르투아의 마오(Mahaut d'Artois)처럼 딸도 대군 영지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314년부터 대군 영지는 아들만 물려받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남게 후손의 부재 시 다시 왕실로 귀속되도록 하였다. Schnerb, *L'État bourguignon*, pp. 40-41.

12) Pierre-Roger Gausson, *Louis XI, Roi méconnu*(Paris: Librairie A.-G. Nizet, 1988), p. 281; Schnerb, *L'État bourguignon*, p. 41.

“간단하게” 프랑스 국왕에게 반환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¹³⁾

15세기에 부르고뉴 공작들은 프랑스 발루아 왕실의 종친으로서 프랑스의 내정과 정치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 동시에 그들은 제국의 제후로서 활동하였고, 프랑스 국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부르고뉴 공국은 백년전쟁기에 국제적인 힘의 균형추 혹은 결정권자(casting voter)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프랑스 왕국의 통치 체제를 모방하여 독자적인 행정조직, 사법조직, 재정조직을 갖추어 나가면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¹⁴⁾ 또한 부르고뉴 공작들은 발루아 가문 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치, 문화적인 선전 정책을 추진하였다.¹⁵⁾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중앙집권화 및 통합 정책을 새로운 국가(왕국) 건설의 단초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세 봉건 영주의 개인적인 야망 성취와 권력 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 필리프 선량공과 그의 아들 샤를 용맹공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영토를 잇고자 하는 영토 통합 정책이었다. 바로 이러한 영토 확장 정책이 1477년 낭시 전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필리프 용맹공은 1363년에 부르고뉴 영지를 하사받았다. 그리고 1369년에는 선대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드 루브르의 미망인이자 플랑드르 백작의 상속

13) 샤를 용맹공의 사후 마리 드 부르고뉴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부르고뉴 공작령을 대군 영지라는 명목으로 프랑스에 귀속시킨 루이 11세에 반발하였다. 부르고뉴 사람들도 프랑스 국왕 군대의 주둔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Jean Favier, *Louis XI*(Paris: Fayard, 2001), pp. 746-748.

14) Schnerb, *L'État bourguignon*, pp. 8-9. 반면에, 프랑스 국왕의 재정에 의존해야 했던 중세 후기 제후국가의 한계에 대해서는 성백용, 『백년전쟁과 프랑스 귀족사회의 변화』, 『프랑스사 연구』 34(2016.02), 23-24쪽.

15) 예를 들어,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적 뿌리와 권위를 강조하는 역사문화 정책의 사례로는 Pierre Cockshaw (dir.), *Les Chroniques de Hainaut, ou, Les ambitions d'un prince bourguignon*, édité par Christiane Van den Bergen-Pantens([Brussels]: KBR; Turnhout: Brepols, 2000) 같은 연구가 있다.

녀인 마르그리트 드 말(Marguerite de Male, 1350-1405)과 혼인함으로써 플랑드르 백작령을 비롯한 북부의 부유한 영지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¹⁶⁾ 또한 그는 부인 덕분에 1384년에는 부르고뉴 백작령, 아르투아 백작령, 느베르 백작령 및 인근 지역도 획득하였다. 필리프 용맹공과 그의 후손들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형성된 15세기 부르고뉴 공국의 특징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과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남부 지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 시기 부르고뉴 공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지역은 바로 북부 플랑드르의 도시들이었다. 당시 저지대 지방은 부르고뉴 공작의 영토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¹⁷⁾ 필리프 용맹공의 손자인 필리프 선량공은 마코네(Mâconnais) 지방, 오세르 백작령, 바루아 백작령, 나뮈루아(Namurois) 지방, 에노(Hainaut), 홀란드, 젤란드와 프리지아, 그리고 피카르디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부와 남부의 영지를 육로로 잇기 위해 1443년에 룩셈부르크 공작령을 합병하였다. 그의 아들 샤를 용맹공도 브뤼셀과 디종을 육로로 잇는 영토 통합정책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때 특히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로렌 공작령이었다.

2. 낭시 전투

1467년 6월 샤를 용맹공은 부친으로부터 당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영토를 물려받았으며, 유럽의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영주로 군림하였다. 샤를은 1469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였던 알자스 지방의 쉐프가우(Sundgau)와 독일 남부의 브라이스가우(Breisgau)를 금전으로 구매하기도 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군사 활동을 통해 지속

16) 마르그리트 드 말은 필리프 5세와 왕비 잔의 딸 마르그리트의 손녀이다. 그녀는 1357년에 필리프 드 루브르와 결혼하였고, 1361년에 미망인이 된 후 1369년에 필리프 용맹공과 재혼하였다.

17) 프레데릭스에 따르면 15세기 후반에 부르고뉴 공국 북부 영지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다고 한다,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 9.

적으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부르고뉴 공국의 마지막 공작의 치세 동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¹⁸⁾ 샤를 용맹공은 1473년에 겔드르 지방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그 직후인 1473년 9월부터 11월까지 트리어(Trier)에서 신성 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3세와 만나 정치적, 외교적인 협상을 벌였다. 그는 ‘로마인들의 왕’의 지위 혹은 ‘제국 대리인(vicariat d’Empire)’의 칭호를 얻기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겔드르의 봉토만을 수여받았다.¹⁹⁾ 이때 처음으로 막시밀리안과 마리 드 부르고뉴의 혼담이 오갔는데,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한 것은 샤를 용맹공이 전사한 이후이다.

이 시기에 샤를 용맹공의 관심은 프랑스보다는 신성 로마제국의 영토를 향해 있었다. 1474년과 1475년 사이에 그는 신성 로마제국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라인 강 서쪽 지방의 정복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부터 부르고뉴 공국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1474년 알자스인들과 스위스인들이 부르고뉴 공작에 대항하여 ‘콘스탄스 동맹’을 결성했다.²⁰⁾ 1474년 4월 22일 콘스탄스 동맹은 부르고뉴 공작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고, 부르고뉴의 지배에 맞서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베른(Bern)의 스위스인들은 부르고뉴 백작령을 침

18) 이에 부르고뉴 공국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과중한 증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 1477년에 샤를이 전사했을 때 플랑드르의 일부 도시 중에는 ‘폭군’의 죽음을 반기는 곳도 있었다.

19) 프랑스 학자인 슈네르브는 이때 샤를이 자신의 영지를 왕국의 지위로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았지만(Schneerb, *L’État bourguignon*, p. 417), 반면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학자들은 부르고뉴 공작에게 왕관을 제안한 것은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였으며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고 주장하였다. A. M. Bonenfant et P. Bonenfant, “Le projet d’érection des États bourguignons en royaume 1477”, *Le Moyen Age* 45(1935), pp. 10-23; Wim Blockmans et Walter Prevenier, *Les Pays-Bas bourguignons*(Paris: A. Michel, 1983), p. 213.

20) 이하 간략하게 요약한 사건의 자세한 전개 및 추이에 대해서는 Richard Vaughan, *Charles the Bold. The Last Valois Duke of Burgundy*(Woodbridge, Suffolk, U.K.; Rochester, N.Y.: Boydell Press, 2002[1973]), pp. 261ff.; Schneerb, *L’État bourguignon*, pp. 418ff.; Frédéricix,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p. 50ff.를 참조할 것.

공하기까지 하였다. 이 시기에 샤를 용맹공은 북부 지방의 노이스(Neuss) 점령을 위한 군사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고, 노이스 공략전은 1475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선은 확대되어 1475년에는 피카르디와 부르고뉴에서 프랑스와의 전쟁이 재개되었다, 1472년에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와 맺었던 휴전 조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샤를 용맹공의 손위 처남인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4세가 랭스(Reims)에서 대관식을 하겠다며 군대를 끌고 칼레에 상륙하여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와 대치하였다. 양국 국왕의 군사적인 대치는 1475년 8월 29일 피키니(Picquigny)에서 9년간 휴전에 합의하며 마무리되었는데, 이때 프랑스 국왕은 거액의 금전을 뿌려서 잉글랜드의 국왕과 귀족들을 매수했다. 부르고뉴 공작은 에드워드 4세가 자신의 이름을 휴전 협정에 마음대로 넣었다는 이유로 불쾌함을 표현했고, 두 군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부르고뉴는 잉글랜드라는 중요한 동맹자를 잃게 되었다.²¹⁾

한편, 전선은 남쪽으로도 확장되었다. 1475년 5월 프랑스 국왕의 부추김을 받은 르네 2세가 샤를 용맹공에게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1473년 로렌 공작 니콜라 당주(Nicolas d'Anjou)가 후사 없이 사망하고 그의 고종 사촌 르네 2세가 로렌 공작령과 바르 공작령을 상속받았다(부록 2의 계보도 참조).²²⁾ 이때부터 샤를 용맹공은 로렌을 부르고뉴 공국의 영향력 하에 두어 일종의 보호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르네 2세는 프랑스 국왕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부르고뉴 공작에 대항하고자 했지만, 부르고뉴와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루이 11세의 배신과 신임 공작에 대해 반기를 드는 로렌의 귀족들, 부르고뉴의 편에 선 주변 지역의 종교 체후

21) 한편, 에드워드 4세의 입장에서도 칼레에 상륙하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주겠다던 샤를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프랑스 국왕과의 휴전 협정에 흔쾌히 서명을 하게 되었다.

22) 르네 2세는 모계를 통해 공작령을 계승하였다. 그의 모친 올랑드는 선대 로렌 공작인 앙주 가문의 르네 1세(René I d'Anjou)의 딸로서, 프랑스 국왕 장 2세의 고손녀이자 나폴리 왕 루이 1세(Louis I de Naples)의 증손녀이기도 했다.

(메스 주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부르고뉴 공작은 1475년 가을에 로렌과 바르를 침공하여 이 지역 영지 대부분을 손쉽게 손에 넣었다. 다만 낭시가 부르고뉴 공작에게 몇 주 동안 저항하였지만, 결국 1475년 11월 26일에 항복하였다. 1475년 11월 30일 샤를 용맹공은 낭시에 공식 입성하였다. 12월에는 낭시에서 지방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로렌 귀족들의 충성 선서를 받았다. 이때 샤를은 로렌을 부르고뉴 공국에 통합시키고 낭시를 수도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로렌 공작령의 바이야주(bailliage) 세 곳에 부르고뉴의 행정 조직이 설치되었다.²³⁾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당시 스위스인들은 부르고뉴 공국의 영토와 더불어 샤를 용맹공의 동맹인 사부아 공작령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르고뉴와 이탈리아를 잇는 육로를 차단당할 수 있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부르고뉴 공작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용병이 부르고뉴 군대에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 1475년 말에서 1476년 초에 샤를 용맹공은 반부르고뉴 동맹의 공격을 받고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을 돕기 위해 스위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월 3일 그랑송(Granson)에서, 그리고 6월 22일에는 모라(Morat)에서 스위스 민병대에 연이어 패배를 당했다. 그랑송 전투는 우수한 전사(기사)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던 부르고뉴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모라 전투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때부터 부르고뉴 공작의 동맹자였던 밀라노 공작 갈레아초 마리아 스포르차(Galeazzo Maria Sforza)가 프랑스 진영으로 돌아서서 오히려 사부아 공작령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샤를 용맹공은 프랑스 국왕의 누이인 사부아 공

23) Vaughan, *Charles the Bold*, pp. 356-358; *La bataille de Nancy. 5 janvier 1477*. Exposition présentée au Palais ducal de Nancy, 5 janvier-11 avril 1977(Nancy: Musée historique lorraine, 1977), pp. 23-24.

24) Schnerb, *L'État bourguignon*, p. 424.

작부인 율랑드를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부르고뉴와 사부아의 동맹이 깨졌다.²⁵⁾ 더욱이 플랑드르를 비롯한 북부 영지의 도시들도 지속되는 전쟁과 과중한 증세에 넉더리를 내며 주군에 대한 자금과 병력 지원을 거부하였다.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잉글랜드조차 피키니의 화의로 프랑스 국왕과 휴전 조약을 맺었고,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막시밀리안과 프랑스 공주의 결혼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고뉴 공작은 동맹자가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²⁶⁾

샤를 용맹공은 로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1476년 8월 로렌 공작령에서 부르고뉴 공작의 지배에 반기를 드는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475년에 샤를 용맹공에게 패배를 당한 후 쫓겨났던 로렌 공작 르네 2세는 콘스탄스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모라 전투에도 참전했다. 르네 2세는 로렌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자신의 영지로 다시 돌아와 부르고뉴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1476년 10월 7일에 낭시를 탈환하였다. 이에 샤를 용맹공은 10월 22일에 낭시 재탈환을 위한 공성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양 진영의 군사적인 대립은 1476년 가을부터 그 다음해 1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1477년 1월 5일 운명의 날 낭시 인근에서 부르고뉴와 로렌의 군대가 대규모 회전을 벌였다. 르네 2세는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스위스 동맹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고, 알자스인들도 합류하였다. 앞선 전투들과 마찬가지로 부르고뉴 공작의 팽창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반부르고뉴파가 모두 결집하였다. 당시 추위와 질병, 장기간의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부르고뉴 군대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1477년 공현절 전날 일어난 전투의 결과는 부르고뉴 군대의 대패로 마무리되었다. 부르고뉴 군대는 낭시로 향하는 길목에 포병대를 배치

25) *Ibid.*, pp. 424-425. 1476년 6월 27일 부르고뉴 공작의 측근인 올리비에 들라마르슈(Olivier de La Marche)가 사부아 공작부인 율랑드 드 프랑스를 납치하여 부르고뉴의 영지에 구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율랑드는 같은 해 8월에 프랑스 국왕의 군대에 의해 구출되어 완전히 프랑스 진영으로 돌아섰다.

26) Marcel Brion, *Charles le Téméraire. Duc de Bourgogne, 1433-1477*(Paris: Tallandier, 2014[2006]), pp. 307-308.

하여 로렌 공작의 군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지만, 로렌 공작은 길을 우회하여 부르고뉴 군대의 측면을 공격했다. 급습을 당한 부르고뉴 군대는 큰 혼란을 겪으며 패주하였고 주요 지휘관들이 포로로 잡혔으며 한동안 그들의 수장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다.²⁷⁾ 부르고뉴 진영에 참전한 이들 중에는 이탈리아 용병대장(condottiere) 캄포바소(Campobasso)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로렌 공작과 은밀하게 협상을 벌였다. 당대에 그리고 16세기에든 캄포바소는 부르고뉴가 낭시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주요 요인을 제공한 “배신자”로 지목되었다. 장드루아(Jean de Roye)는 부르고뉴 군대가 패주할 때 캄포바소의 군대가 길목의 다리를 가로막아 버려서 부르고뉴인들이 로렌 공작의 군대에 대규모로 학살당하거나 강물에 몸을 던져야 했다고 전하고 있다.²⁸⁾ 캄포바소의 배신은 필리프 드 코민(Philippe de Commynes)도 과장해서 전하고 있다.²⁹⁾ 다만 그는 부르고뉴 공작의 패배에 대해 일개 용병대장의 배신을 넘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을 제시한다. 코민은, 부르고뉴 공작의 군대는 두 번의 패배를 겪으면서 병력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상태도 좋지 못했다고 지적한다.³⁰⁾ 그는 샤를 용맹공이 큰 손실을 입기 시작한 것은 노이스 공성전부터이며, 그러한 손실은 낭시 전투에 이르기까지 서너 차례의 전투를 거치며 누적되었다고 평가한다.³¹⁾ 결국 신성 로마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대과

27) 이 글의 관심사는 낭시 전투의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이 사건을 기록한 1차 사료 중에서 특히 Philippe de Commynes, *Mémoires*, t. 1, édition critique par Joël Blanchard(Genève: Droz, 2007), Livre IV, Ch. 8, pp. 352-363을 참조할 수 있다. 중세 프랑스어와 현대 프랑스어를 나란히 게재한 사료 출판본으로는 Philippe de Commynes, *Mémoires*, t. 2, Livres IV-VI, présentation et traduction par Jean Dufournet, édition bilingue(Paris: Flammarion, 2007), pp. 192-199를 참조할 것. 현대 역사가의 서술로는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p. 200-212.

28) Jean de Roye, *Chroniques scandaleuse. Journal d'un Parisien au temps de Louis XI*, traduit et présenté par Joël Blanchard(Paris: Pocket, DL 2015), p. 299.

29) Philippe de Commynes, *Mémoires*, t. 2, Dufournet (éd.), pp. 196-197.

30) *Ibid.*, pp. 198-199.

31) *Ibid.*, pp. 202-203.

국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III. 낭시 전투에 대한 평가와 기념

1. 부르고뉴 공국과 낭시 전투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

낭시 전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단순히 국지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르고뉴 공작들의 정치적 의도와 구상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와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 왕국의 국가적인 통합을 방해하던, 반드시 물리치고 흡수해야 하는 세력이었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부르고뉴 공국은 후대에 건설되는 새로운 국가(들)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는 단지 프랑스사로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사라는 더 큰 렌즈를 들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세기 부르고뉴 공작들의 정치적인 목표와 그 역사적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룩한 나라의 성격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여러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필리프 선량공과 그의 아들 샤를 용맹공의 정치적, 군사적 목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양분된다. 그것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의 영토를 통합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벌였다는 견해와, 전통적인 봉건 영주의 탐욕스러운 영토 확장 시도에서 기인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부르고뉴 공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낭시 전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르고뉴 공작들이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은 특히 “로타링기아 왕국 건설의 꿈”이라는 테제로 제시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라비스(Lavisse) 프랑스사』가 있다. 1902년에 『라비스 프랑스사』 제4권 2부

를 집필한 샤를 프티뒤타이(Charles Petit-Dutaillies, 1868-1947)는 1477년 낭시 전투로 귀결되는 1460-70년대의 일련의 군사 활동이 부르고뉴를 프랑스에서 독립시켜 옛 로타링기아 왕국을 건설하려는 샤를 용맹공의 야심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³²⁾ 낭시 전투를 부르고뉴 공작의 로타링기아 왕국 재건 시도의 좌절로 보는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특히 프랑스 역사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로타링기아’ 테제의 또 다른 이름은 “중간 지대 나라(pays médian)” 테제이다. 이 역시 부르고뉴 공작들이 프랑스와 제국 사이의 영토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하나는 장 슈네데르(Jean Schneider)로서, 그는 부르고뉴 공국이 로타링기아와 부르고뉴를 주축으로 하는 “중간 지대 나라”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³³⁾ 또한 낭시 전투를 프랑스를 만든 중요한 30대 사건 중 하나로 거론한 피에르 프레데릭스 역시 동일한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벨기에의 중세사학자 앙리 피렌(Henri Pirenne)은 발루아 가문의 부르고뉴 공작들이 독립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며,³⁴⁾ 부르고뉴 공국이 먼 훗날에 세워질 근대 국민국가, 즉 ‘벨기에’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했다.³⁵⁾ 피렌의 견해는 이미 16세기의

32) Charles Petit-Dutaillies, *Histoire de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Révolution*, sous la direction de Ernest Lavisse, tome IV, deuxième parité: *Charles VII, Louis XI et les premières années de Charles VIII(1422-1492)*(Paris: Équateurs, 2010[1902]), pp. 369-370.

33) Jean Schneider, “Lotharingie, Bourgogne ou Provence? L'idée d'un royaume d'Entre-Deux aux derniers siècles du Moyen Age”, dans *Liège et Bourgogne*, Actes du Colloque tenu à Liège les 28, 29 et 30 octobre 1968(Liège: Université de Liège, 1972), pp. 15-44; Richard, “Le destin des institutions bourguignonnes”, p. 291.

34) Henri Pirenne, *Histoire de Belgique*, t. II, 3^e éd.(Bruxelles: Henri Lemartin, 1922), p. 258.

35) 이하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서는 Schnerb, *L'État bourguignon*, pp. 8-10; Blockmans et Prevenier, *Les Pays-Bas bourguignons*, pp. 207-208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충하였다.

역사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폰투스 하위티(Pontus Huyter, 1535-1602)는 필리프 선랑공을 “벨기에 제국의 창립자(imperii Belgici conditor)”라 불렀고,³⁶⁾ 브라반트 출신 휴머니스트 유스투스 립시우스(Iustus Lipsius, 1547-1606)도 필리프 선랑공을 “벨기에의 창립자(conditor Belgii)”라 일컬었다. 반면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부르고뉴 공국을 주권국가 형성의 단초로 보는 해석을 반박하면서 부르고뉴 공작의 영토 확장 정책은 프랑스 국왕의 권력이 약화된 상황을 틈타 표출된 개인적인 동기와 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⁷⁾ 하위징아는 중세의 마지막 300년 동안 백성들이 영주에 대해 갖는 애착심은 정치적인 감정이 아닌 당파심이었고 이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인 대립은 파벌간의 대립에 불과했다고 보았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징아 역시 1477년을 네덜란드의 역사에서 시대 구분의 주요 기점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³⁹⁾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특히 벨기에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르고뉴 공작의 독립국가 건설 테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벨기에의 중세사학자 폴 보낭팡(Paul Bonenfant, 1899-1965)은 적어도 샤를 용맹공의 집권 초기까지 부르고뉴 공작들은 프랑스 왕실 혈통의 제후로 행세했고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며 부르고뉴 공작이 다스리는 정치는 영토상의 연속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필리프 선랑공이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⁴⁰⁾ 모리스 오렐리앵 아르누(Maurice-Aurélien

36) Blockmans et Prevenier, *Les Pays-Bas bourguignons*, p. 207.

37) Johan Huizinga, “L’État bourguignon, ses rapports avec la France et les origines d’une nationalité néerlandaise”, *Le Moyen Age*, t. 40(1930), pp. 171-193 et t. 41(1931), pp. 11-35, 83-96.

38) 요한 호이징가[하위징아], 『중세의 가을』, 최홍숙 옮김(문학과 지성사, 1988), 26쪽.

39) Johan Huizinga, “L’État bourguignon”, t. 41(1931), p. 35.

40) Paul Bonenfant, *Philippe le Bon: sa politique, son action*, études présentées par

Arnould, 1914-2001)는 낭시 전투와 샤를 용맹공의 죽음을 로타링기아 왕국 건설 계획이 좌절되고 부르고뉴 영지가 프랑스로 반환된 사건으로 평가한 프레데릭스의 견해를 프랑스 중심주의적 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낭시 전투가 부르고뉴 공작의 개인적인 야망에 의한 영토 확장을 끝낸 사건일지언정, 그것이 결코 부르고뉴라는 “나라(État)”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다.⁴¹⁾ 장 마리 코시(Jean-Marie Cauchies)는 샤를 용맹공의 목표가 신성 로마 제국에 영향력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황제가 되려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정책에서 독립적인 왕국 건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로타링기아 왕국 건설 의도를 지나치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⁴²⁾

반면에, 영미권 학자인 리처드 본(Richard Vaughan)은 발루아 가문의 부르고뉴 공작들의 치세를 일련의 국가 형성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미 필리프 용맹공의 치세부터 부르고뉴에서는 제도 정비 및 십자군 운동의 주도에 기반한 부르고뉴 공국의 위상 확보 등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보았다.⁴³⁾ 한편,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빔 블록만스(Wim Blockmans)와 발테르 프레베니어(Walter Prevenier)는 부르고뉴 공국의 형성은 역대 공작들의 정책에 의한 우연의 산물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의도적인 독립국가 건설 지향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다만 이러한 변화 시점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르고뉴 공작의 독립국가 건설 야심과 프랑스 왕국에서의 정치적인 역할

A.-M. Bonenfant-Feytmans(Paris et Bruxelles: De Boeck Université, 1996).

41) Maurice-A. Arnould, “Les lendemains de Nancy dans les ”Pays de par deçà“ (janvier-avril 1477)”, W. P. Blockmans (dir.), *Le privilège général et les privilèges régionaux de Marie de Bourgogne pour les Pays-Bas*(Kortrijk-Heule, UGA, 1985).

42) Cauchies, *Louis XI et Charles le Hardi*, pp. 161-162.

43) Richard Vaughan, *Philip the Bold: the Formation of the Burgundian State*, revised edition(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9).

을 절충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보았다.⁴⁴⁾

최근 프랑스에서도 부르고뉴 공국에 대한 프랑스 학계의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벨기에나 네덜란드 학계의 해석을 일부 수용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베르트랑 슈네르브이다. 그는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를 프랑스에 대한 투쟁과 독립으로 요약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부르고뉴 공작들의 정책에서 신성 로마제국과의 관계와 기독교 세계에서 주도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의 추진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하였다.⁴⁵⁾ 한편, 전통적인 관점에 충실하게 따르는 조르주 미누아(Georges Minois)는 “부르고뉴 공국” 건설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며, “괴물 같은 존재(entité monstrueuse)”였다는 과격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부르고뉴 공국이 프랑스와 제국 사이에서 대단히 상이한 관습과 전통을 지닌 여러 영토 조각들을 모자이크처럼 모아놓은 상태였으며, 특히 루이 11세 같은 강력한 국왕이 등장한 상태에서 부르고뉴 공작은 자신의 영지들을 일관성을 지닌 정치체로 만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⁶⁾

이처럼 부르고뉴 공작들의 정책과 부르고뉴 공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석과 평가가 존재한다. 부르고뉴 공국을 중세 후기에 나타난 일종의 국가 건설 시도로 볼 때 낭시 전투의 결과는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혹은 프랑스에서처럼 국가 ‘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봉건 영주의 탐욕에서 기인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낭시 전투 이후에도 16세기의 “부르고뉴 공국”, 즉 저지대 지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본다면 이 사건은 시대 구분의 계기로서는 그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4) Blockmans et Prevenier, *Les Pays-Bas bourguignons*, pp. 208-210.

45) Schnerb, *L'État bourguignon*, pp. 412-417, 435-436.

46) Georges Minois, *Charles le Téméraire*(Paris: Perrin, 2015), pp. 508-509.

2. 낭시 전투에 대한 기억과 기념

1) 당대와 16세기의 기념

오늘날 1477년 낭시 전투에 대해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추모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낭시이다. 낭시의 도심에서 테메레르 거리(Rue de Téméraire), 레탕 거리(rue de l'Étang), 라코망드리 광장(place de la Commanderie)⁴⁷⁾ 등은 지명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낭시 전투에 대한 당대의 기념은 우선 낭시에서 거행된 망자의 장례식으로 시작되었다. 낭시 전투에서 전사한 샤를 용맹공의 시신은 이틀 후에야 생장 연못(étang Saint-Jean) 인근에서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전투 중에 크게 훼손된 그의 시신은 늪대의 먹이가 되어 알몸인 채로 너털너털해져 있었다고 한다. 시신은 로렌 총독 장드뤼방프레(Jean de Rubempré)의 시신과 더불어 낭시로 옮겨졌다. 현장에 불려온 의사와 더불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필리프 선랑공의 서자 앙투안과 부르고뉴 공작의 측근 올리비에 들라마르슈(Olivier de La Marche)를 비롯한 몇몇 인물들도 함께 불려 와서 시신 중 하나가 샤를 용맹공이 확실함을 확인하였다.⁴⁸⁾ 샤를의 시신은 장례 절차를 밟으며 1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조르주 마르케즈(Georges Marqueiz)의 집에 안치되어 조문객들에게 공개되었다. 오늘날 낭시에는 장례 기간 동안 부르고뉴 공작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지점(현재의 그랑드뤼 30번지)에 1미터 크기의 십자가와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시해 놓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기 위한 작은 팻말을 걸어놓고 있다(그림 1과 그림 2).

47) 1476년 10월 샤를 용맹공이 낭시를 공격할 때 그는 성요한 기사단 관사(la Commanderie de Saint-Jean) 인근에 주둔했다.

48)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p. 215-217.



〈그림 1〉



〈그림 2〉

〈그림 1〉 및 〈그림 2〉 장례 기간 중 샤를 용맹공의 시신 안치 지점을 알리는 표지 (30 Grande-Rue, Nancy)⁴⁹⁾

샤를의 시신은 1월 12일 일요일에 생조르주 참사회 교회(le Collégial Saint-Georges)의 북쪽 회랑에 매장되었다. 샤를과 함께 전사한 뒤방프레의 시신 역시 근처에 매장되었다. 르네 2세는 샤를 용맹공의 무덤

49) 사진출처 <http://fierdetrebourguignon.blogspot.kr/2014/01/triste-5-janvier-1477.html>
(최종 검색일: 2017년 1월 22일).

위에 조각상을 만들어 고인을 기념하였다. 샤를의 와상(臥像)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석상 옆의 검은 대리석 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무덤 아래에 샤를이 잠들어 있다. 그는 부르그뉴 족(*la nation bourguignonne*)의 영광이었으며 한때 유럽의 공포이기도 했다. [...] 그는 공작들, 국왕들, 그리고 황제의 군대를 깔보면서 피의 바다 속에서만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결국 평소의 군사적인 성공에 기대면서 무모하게 로렌 공작을 공격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 가운데에서 숨을 거두었고 적진에 황금양모기사단을 버려두었다. 이처럼 승리자 르네는 위대한 군주에 맞서 오랫동안 남을 승리의 월계수를 희독하였다. 오! 샤를, 그토록 많은 영토를 탐했던 그대여, 신께서 그대가 천국에 들 것을 허용하시고 그대가 과거에는 경멸했던 평화라는 보석을 주시기를! 지금 그대는 하늘에서 낭시의 성벽을 내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구나. “오만한 내가 자비로운 적 덕분에 여기에 묻히게 되었구나. 세속적인 것을 뿔낼 필요가 없음을 배우라. 그토록 많이 정복했던 이가 결국에는 정복되었도다.”⁵⁰⁾

르네 2세가 세운 묘비명은 짐짓 고인을 추모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샤를의 무모한 모험을 교훈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로렌의 궁정에서는 르네 2세를 높이 추켜세우면서 부르그뉴 공작 샤를을 르네 2세의 대척점에 위치한 부정적인 인간으로 제시하였다. 르네 2세의 옛 비서였던 피에르 드 블라뤼(*Pierre de Blarru*, 1437-1510)는 『일리아드』를 모방해서 쓴 운문 『낭세이드』(*La Nancéide*)에서 르네 공작을 새로운 헥토르에 비유하였다.⁵¹⁾

샤를 용맹공의 사망과 장례 소식은 부르그뉴 공국에는 뒤늦게 알려졌다. 샤를의 미망인 요크의 마거릿이 남편의 시신을 디종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르네 2세는 자신이 시체나 팔아먹는 인간이 아니

50)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p. 220-221에서 재인용.

51) Pierre de Blarru, *La Nancéide. Le poème consacré à la victoire remportée devant Nancy par le duc de Lorraine René II sur le duc de Bourgogne, Charles le Téméraire, le 5 janvier 1477*, Jean Boès (éd.)(Nancy: A.D.R.A, 2006).

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대신 묘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샤를 용맹공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고 그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부르고뉴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가 살아있다는 헛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샤를 용맹공이 강신술(nécromancie)을 익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는 낭설이 떠돌기도 하였다.⁵²⁾ 로베르 가갱(Robert Gaguin)은 낭시 전투 직후 아르투아인들과 부르고뉴인들이 샤를 용맹공이 전장에서 탈출하여 7년간 고행을 떠나게 되었으며 고행을 마친 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되돌아와 복수를 할 것이라고 완고하게 믿고 있는데, 이는 무척 터무니없고 미련한 맹신이라고 논평했다.⁵³⁾

1550년에 샤를 용맹공의 외증손자인 신성 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Charles Quint)는 로렌의 섭정이자 자신의 질녀인 덴마크의 크리스티나에게 샤를 용맹공의 시신을 수습해서 브뤼헤의 노트르담 성당으로 보내줄 것을 제안하였다.⁵⁴⁾ 크리스티나는 조상의 묘를 옮기자는 카를 5세의 제안에 동의했고, 황제가 파견한 이들이 샤를의 유해(실제로는 샤를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부르고뉴의 영지로 옮겼다. 그리고 9년 후 브뤼헤의 노트르담 성당에 묻힌 마리 드 부르고뉴의 무덤 옆에 샤를 용맹공의 무덤이 다시 세워졌다.⁵⁵⁾

52)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 220.

53) Robert Gaguin, *Compendium de origine et gestis Francorum*(Paris: Thielmann Kerver pour Durand Gerlier et Jean Petit, 13 janvier 1500[1501 n. st.]). Lib. X, fol. 154.

54) 덴마크의 크리스티나는 필리프 미남공과 카스티야의 후안나의 외손녀로서, 샤를 용맹공의 외고손녀뻘이 되는 후손이었다(부록 2의 계보도 참조).

55) 프레데릭스는 황제의 칙사들이 가져온 유해가 실제 샤를의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면서, 현재 브뤼헤에 묻혀 있는 유해가 장 드 뤼방프레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유해를 재발굴할 때 로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소를 잘못 짚었으며 다시 유해를 파낸 지점이 샤를의 묘와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 뤼방프레가 묻혀 있던 곳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로렌의 생조르주 교회에 있던 샤를 용맹공의 묘소는 1717년에 해체되었고, 공사 과정에서 나온 유해의 잔해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완전히 사라졌다. Frédéric,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pp. 224-229.

로렌 공작이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샤를 용맹공의 죽음을 기념했던 반면에, 부르고뉴-합스부르크 황실에서는 가문의 뿌리를 강조하면서 저지대 지방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샤를 용맹공의 유해를 옮겨와서 그의 죽음을 기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스부르크 황실과 에스파냐 왕실의 후손인 카를 5세는 플랑드르의 헨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를 내세워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동시에 저지대 지방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부르고뉴의 군주’로 행세했다. 저지대 지방의 주민들도 카를 5세를 부르고뉴 공작의 정당한 계승권자로서 플랑드르인의 기질을 지닌 천부적인 주군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의 치세 말기에는 1539년에 헨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저지대 지방에서 불안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말년에 갑자기 샤를 용맹공의 시신을 찾아오고 브뤼헤에 그의 무덤을 새롭게 건조한 것은 자손들에게 부르고뉴의 영지를 물려주기 전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합스부르크 황실과 발루아-부르고뉴 가문의 혈연관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이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근대 초에는 왕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지배계층이 낭시 전투 자체보다는 샤를 용맹공에 대한 추모와 기념을 주도하였다.

2)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

낭시 전투는 19세기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시대에 재조명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미술관이나 박람회에 전시되어 대중들이 감상하는 역사화 및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문필가들의 저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고양되었다. 낭시 전투를 묘사한 19세기의 역사화 중에서는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의 그림이 가장 유명하다. 들라크루아의 〈낭시 전투〉는 프랑스 왕정복고 시대인 1828년에 프랑스 내무부가 낭시 미술관을 위해 주문한 것이다(도판 4). 프랑스 혁명의 화가로 알려진 들라크루아는 초창기에는 부르봉 왕실의 주문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였다. 당시 복고 왕정에서는 프랑

스 대혁명으로 무너진 아버지(국왕)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썼으며, 따라서 왕실에서 주문한 예술 작품에서도 프랑스의 역사와 계보, 유산(patrimony) 등의 화두가 강조되었다.⁵⁶⁾ 들라크루아의 〈낭시 전투〉는 이런 맥락에서 부르봉 복고 왕조가 주문한 작품이었다. 이와 동시에 들라크루아는 특히 당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낭시 전투를 프랑스와 부르봉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수의 19세기 화가들이 낭시 전투를 묘사한 역사화를 그렸다.⁵⁷⁾ 이 시기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지에서 역사 서술과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에서도 낭시 전투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념하였다.



〈그림 3〉 외젠 들라크루아 〈낭시 전투〉(1831년, 낭시 미술관)

56) Elisabeth A. Fraser, *Delacroix, Art and Patrimony in Post-Revolutionary France*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2. 프레이저는 당시 “가족”이라는 화두가 들라크루아의 작품 활동에 은연중에 내재한 하위 주제(subtext)였고,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 목을 잘리며 무너진 가부장(국왕)의 권위 회복을 추구하던 부르봉 복고 왕정의 지향과 맞닿아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57) Louis-Antoine Prat, “The Sultan and Charles the Bold”, *Master Drawings*, Vol. 47, No. 4(Winter, 2009), pp. 495-497.

문필가 중에서는 쥘 미슐레(Jules Michelet)가 샤를 무모공[용맹공]에 대한 관심을 대중들에게 환기시키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다. 그는 1844년에 출간한 『프랑스사』 제6권의 부제를 “루이 11세와 샤를 무모공”으로 붙이면서 두 인물을 중세 후기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⁵⁸⁾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소설책에 가까운 미슐레의 글에서 루이 11세는 낭시 전투 직전에 전개되는 사건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심지어 루이 11세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주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가 한 문단 내내 주어로 등장하는 구절도 있다. 루이 11세는 부르그뉴 공작의 명으로 납치된 사부아 공작부인을 구해내고, 스위스인들에게 부르그뉴를 침공하라는 조언을 건네며, 그 자신은 몸소 플랑드르를 담당한다. 루이 11세가 자금을 지원하여 로렌의 수복을 돕자 로렌 공작 르네 2세는 프랑스 국왕의 후의에 깊이 감동한다.⁵⁹⁾ 일부 역사적 사실에 과장된 해석과 상상을 섞어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문장의 주어가 루이 11세라는 점이다. 낭시 전투 직전 루이 11세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막후에서만 간접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던 시기에, 미슐레는 그를 적극적으로 주인공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을 통해 미슐레는 효과적으로 루이 11세와 샤를 용맹공을 “역사의 라이벌”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민족주의 시대에 낭시 전투는 유럽의 여러 민족 혹은 국민국가 형성에 결정적 기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낭시 전투 자체에 대한 기념 활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낭시 전투가 역사학계에서 가장 크게 조명을 받은 시기는 낭시 전투 500주년이 되던 1977년이었다. 이때를 기해 낭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낭시 2대학에서는 낭시 전투 5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발간했으며, 서구의 여러 학자들

58) Jules Michelet, *Histoire de France*. t. 6, *Louis XI et Charles le Téméraire*(Paris: L. Hachette, 1844).

59) *Ibid.*, p. 402.

은 샤를 용맹공이나 부르고뉴를 다룬 저서를 출판했다. 또한 이 해부터 낭시에서는 낭시 전투 기념식이 매년 개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활동이나 학술 활동은 단편적인 에피소드에 머물렀으며, 낭시 전투 기념식만 소수 집단에 의해 추모되는 의식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오늘날에는 낭시 전투가 프랑스의 극우파들이 기념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3) 프랑스 극우파의 낭시 전투 기념60)

로렌 지방의 중심 도시 낭시의 도심에 위치한 크루아드부르고뉴 광장에는 르네 2세와 로렌의 십자가를 그려 넣은 시멘트와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잡한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념비 앞에서 1977년 이래 매년 낭시 전투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으며, 기념식은 로렌과 낭시의 극우파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도판 5와 도판 6). 1977년에 처음으로 낭시 전투 기념을 주창한 이는 낭시 출신의 향토사가이자 작가인 장 마리 쿠니(Jean-Marie Cuny)이다.⁶¹⁾ 그는 민족주의자이면서 로렌 지방주의자인 동시에 가톨릭 전통주의자라는 정치색을 지닌 인물이며, 또한 출판업자 겸 서적상이기도 하다.⁶²⁾ 그는 처음에는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에서 활동하다가 1999년에 창설된 또 다른 극우정당인 공화국민운동(Mouvement National Républicain, MNR)으로 옮겨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⁶³⁾ 매년 1월 5일에 개최되는 낭

60)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술서나 논문을 찾지 못했기에 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얻은 자료들을 참조하여 서술하면서 필자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다.

61) 쿠니에 대한 간략한 정보로는 <http://www.babelio.com/auteur/Jean-Marie-Cuny/214040>(최종 검색일: 2017년 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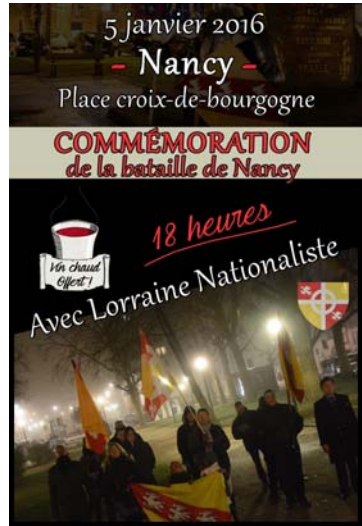
62) 쿠니가 운영하는 출판사는 1976년에 낭시 전투에 대한 소책자를 출간하였다. Pierre Gérard, *La Bataille de Nancy: son importance européenne*(Nancy: Édition J. M. Cuny-Librairie Lorraine, 1976).

63) 쿠니의 극우파 활동에 대해서는 웹페이지 “Reflex: Enquête & analyses sur l’extrême droite contemporaine”를 참조할 것. <http://reflexes.samizdat.net/biographies-rapides-de-certains-militants-cites-dans-les-articles/>(최종 검색일: 2017년 1월 6일).

시 전투 기념식에서는 퀴니나 국민전선의 부대표 장뤽 마누리(Jean-Luc Manoury) 같은 극우파 인사들이 기념 연설을 하곤 한다.



〈그림 4〉



〈그림 5〉

〈그림 4〉 제539회 낭시 전투 기념식 (2016년 1월 7일)⁶⁴⁾

〈그림 5〉 낭시의 극우파 집단 로렌 나시오널리스트(Lorraine Nationaliste)의 2016년 낭시 전투 기념식 집회 안내 포스터⁶⁵⁾

예를 들어, 2011년 3월 6일자 온라인 정치 매거진 블로그 “로렌의 왕당파(la-lorraine-royaliste)”에 실린 장 마리 퀴니의 낭시 전투 기념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⁶⁾ 아마도 2011년 1월 5일 제533회 낭

64) 매년 낭시에서 개최되는 낭시 전투 기념식에 대해서는 <http://histoirepatrimoinebleurvillois.hautetfort.com/>의 단신 기사를 참조할 것 (최종 검색일: 2017년 1월 5일).

65) 사진출처: <https://lorrainenationaliste.com/2015/12/02/5-janvier-2016-nancy-commemoration-de-la-bataille-de-nancy/> (최종 검색일: 2017년 1월 5일).

66) Harangue de Jean-Marie Cuny dans le blog la-lorraine-royaliste politique Magazine, publié le 6 mars 2011 par Philippe Schneider:

시 전투 기념식 연설로 보인다.

친구들이여, 겨울입니다 ! [...] 요컨대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렌의 역사와 프랑스의 역사, 그리고 유럽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회상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477년 1월 5일이라는 날짜는 전혀 기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도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7월 14일을 기념하는 것이 더 쉬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

기억할 만한 사건인 1477년 낭시 전투에 대해서는 독일인과 알자스인, 스위스인, 그리고 로렌 사람들이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 무모한 샤를 공작은 겨울의 추위를 무릅쓰고 로렌 공작령의 성채들을 점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렌 공작령의 수도 낭시는 저항을 했고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 받았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노인, 여자, 아이들이 용감하게 저항하면서 이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르네 2세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르네 2세는 헬베티아인들에게 원병을 청하기 위해 떠났고 1476년 모라 전투에 참전하여 스위스인들이 승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스위스 사람들은 부르고뉴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침략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위스인들은 자국의 이슬람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백색 십자가가 세워진 자국의 땅에 회교 사원의 첨탑(minaret)을 세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⁶⁷⁾ 최근 스위스 국립자문위원회(le conseiller national suisse)는 헬베티아 영토 전역에서 “유럽 연합의 깃발”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스위스의 주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독립국가에 자신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장에서 유럽 연합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럽 연합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로렌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

로렌 만세 !

<http://la-lorraine-royaliste.over-blog.com/article-harangue-de-jean-marie-cuny-68743652.html> (최종 검색일: 2017년 1월 5일).

67) “백색 십자가”는 가톨릭을 상징한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2009년 11월 29일에 우익 정당 UDC(L'Union démocratique du centre)의 발의로 실시된 국민투표를 말한다. 관련 기사로 Pascal Sciarini, “Suisse: les affiches chocs de la droite populiste décryptées”, *Le Monde*, le 30 novembre 2009를 참조할 것.

퀴니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낭시 전투를 프랑스 혁명에 못지 않은 범국가적인 국민 축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과 낭시 전투에 함께 참전했던 헬베티아인들의 후손, 즉 현대의 스위스인들처럼 무슬림을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하며, 유럽 연합의 깃발을 자신들의 고장에서 강제로 게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낭시 전투를 21세기 스위스의 반이슬람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뜬금없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논리성과 더불어, 퀴니의 주장은 프랑스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반유럽 연합의 태도만은 확실하며,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추구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⁸⁾ 퀴니의 연설에는 비역사성과 시대 착오,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국민전선 지도자의 낭시전투 기념 연설에서도 반이슬람 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로렌의 프랑스 극우파들은 오늘날 로렌 공작의 먼 후예들이 싸워야 하는 외국인을 과거의 “부르고뉴인” 대신 오늘날의 무슬림으로 단순하게 대체하여 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15세기 후반 프랑스 왕국과 신성 로마제국 사이 “중간 지대”에서는 일부 대제후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영지들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15세기의 부르고뉴 공국은 이러한 통합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

68) 퀴니의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오늘날 유럽의 극우주의자들은 반유럽 연합 정치 담론으로 “로타링기아”를 내세우고 있는데, 로렌의 극우파의 주장이 이러한 경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극우파의 로타링기아 담론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완성한 후에 자료를 찾았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로타링기아 테제’는 중세의 정치사상과 문화 이데올로기 연구에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각국 역사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것을 지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첩언하자면, 15세기 후반 부르고뉴의 상황에서 이념적인 담론과 역사적인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였다.⁶⁹⁾ 다만, 부르고뉴 공국이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의도적인 정책의 산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봉건 영주의 탐욕에서 기인한 우연의 산물인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1477년의 낭시 전투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475년 로렌 공작의 부르고뉴 공작에 대한 전쟁 선포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기점을 1473년 샤를 용맹공의 신성 로마제국 영역으로의 영토 확장 전쟁 착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낭시 전투는 겉보기에는 지방의 대제후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두 영주의 대립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15세기 후반 유럽의 여러 공동체와 정치 세력 사이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얽혀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낭시 전투는 근대 초 유럽의 판도와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각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지역이나 정치관, 역사관에 따라 여러 상이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낭시 전투를 기념하는 의도와 목적 역시 시대와 기념 주체에 따라 변화하였다.

근대 초에 낭시 전투는 왕조의 혈통과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념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 초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시대에는 역사서술, 예술, 문학 등에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형성의 기점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낭시 전투를 자국사 혹은 민족사가 시작되는 주요 기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점이 더 이상 널리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벨기에사 혹은 네덜란드사 개설서에서 1477년과 낭시 전투를 더 이상 시대 구분의 결정적인 기점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⁷⁰⁾ 한편, 프랑스에서는 낭시 전투의 역사적 의미

69) 비슷한 시기에 로렌과 바르 등의 영지를 보유했던 앙주 가문 역시 인근 영지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0) 예를 들어, Christophe de Voogd, *Histoire des Pays-Bas: des origines à nos*

를 프랑스의 정체성 형성과 결부시켰고, 여기에는 19세기의 미술레 같은 문필가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역사학자들도 기여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르고뉴 공국과의 대립이 로타링기아 왕국 건설 시도의 분쇄 혹은 좌절이라는 전통적인 화두에 의해 구성되었고, 부르고뉴의 “실패” 혹은 “미완”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성공”이 강조되었다. 낭시 전투는 “프랑스를 만든 중요한 30대 사건이 일어난 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랑스에서 1월 5일은 7월 14일 대혁명 기념일처럼 전국적, 대중적으로 기념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날짜는 아니다. 그런데 로렌 지방의 극우파들은 오늘날 매년 낭시 전투를 기념하면서 반이민과 반이슬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세기 프랑스 극우파들에게 주적은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유럽 연합 탈퇴와 이민자 배척을 당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로렌의 극우파의 경우에는 낭시 전투 기념일이 돌아올 때 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실제 당대의 맥락 및 역사적 현실과는 별로 상관없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의 오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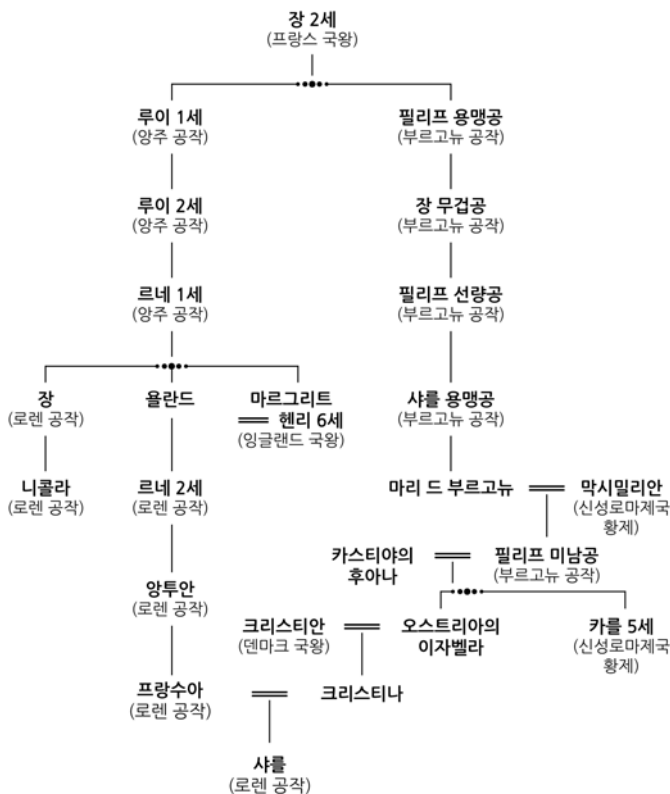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투고일자: 2017. 1. 23, 심사일자: 2017. 2. 10, 게재확정일자: 2017. 2. 10〉

▶ **주제어** : 낭시 전투(Battle of Nancy), 샤를 옹맹공(Charles the Bold), 부르고뉴 공국(Burgundian State), 기념(Commemoration), 극우파(Extreme Right)

jours, Nouv. (éd.)(Paris: Fayard, 2003[1992]); Yves Manhès, *Histoire des Belges et de la Belgique*(Paris: Vuibert, 2005); Patrick Weber, *La grande histoire de la Belgique*(Paris: Perrin, 2016[2013]); Catherine Denys et Isabelle Paresys, *Les anciens Pays-Bas à l'époque moderne, 1404-1815: Belgique, France du Nord, Pays-Bas*, 2^e éd. mise à jour(Paris: Ellipses, 2016).

[부록 2] 앙주, 부르고뉴, 합스부르크 가문 계보도



참고문헌

1. 1차 문헌

- Pierre de Blarru, *La Nancéide. Le poème consacré à la victoire remportée devant Nancy par le duc de Lorraine René II sur le duc de Bourgogne, Charles le Téméraire, le 5 janvier 1477*, Jean Boës (éd.)(Nancy: A.D.R.A, 2006).
- Philippe de Comynnes, *Mémoires*, 2 tomes, édition critique par Joël Blanchard (Genève: Droz, 2007).
- _____, *Mémoires*, 3 tomes, édition bilingue, présentation et traduction par Jean Dufournet(Paris: Flammarion, 2007).
- Robert Gaguin, *Compendium de origine et gestis Francorum*(Paris: Thielmann Kerver pour Durand Gerlier et Jean Petit, 13 janvier 1500[1501 n. st.]).
- Michelet, Jules, *Histoire de France*. t. 6, *Louis XI et Charles le Téméraire* (Paris: L. Hachette, 1844).
- Jean de Roye, *Chroniques scandaleuse. Journal d'un Parisien au temps de Louis XI*, traduit et présenté par Joël Blanchard(Paris: Pocket, DL 2015).

2. 연구문헌

- 성백용, 『백년전쟁과 프랑스 귀족사회의 변화』, 『프랑스사 연구』 34(2016. 02).
- 요한 호이징가[하위징아], 『중세의 가을』, 최홍숙 옮김(문학과 지성사, 1988).
- Arnould, Maurice-A., “Les lendemains de Nancy dans les «pays de par-deça» (janvier-avril 1477)”, Willem Pieter Blockmans (dir.), *Le privilège général et les privilèges régionaux de Marie de Bourgogne pour les Pays-Bas. Anciens Pays et Assemblées d'États*, t. 80(Kotrijk-Heule, 1985).
- Blockmans, Wim and Prevenier, Walter, *The Promised Lands: the Low Countries under Burgundian rule, 1369-1530*, translated by Elizabeth Fackelman, revised edition by Edward Peters(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 _____, *Les Pays-Bas bourguignons*, traduit du néerlandais par Alain Dierkens avec la collaboration de Chantal de Hemptinne([Paris]: A. Michel, 1983).

- Bonenfant, A. M. et Bonenfant, P., “Le projet d’érection des États bourguignons en royaume 1477”, *Le Moyen Age* 45(1935).
- Bonenfant, Paul, *Philippe le Bon: sa politique, son action*, études présentées par A.-M. Bonenfant-Feytmans(Paris et Bruxelles: De Boeck Université, 1996).
- Cauchies, Jean-Marie, *Louis XI et Charles le Hardi. De Péronne à Nancy(1468-1477): le conflit*(Bruxelles: De Boeck Université, 1996).
- Cinq-centième anniversaire de la bataille de Nancy(1477)*, Actes du Colloque organisé par l’Institut de recherche régionale en sciences sociales, humaines et économiques de l’Université de Nancy II, Nancy, 22-24 septembre 1977(Nancy: Annales de l’Est, 1979).
- Fraser, Elisabeth A., *Delacroix, Art and Patrimony in Post-Revolutionary France*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Frédéric, Pierre,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Paris: Gallimard, 1966).
- Gaussin, Pierre-Roger, *Louis XI, Roi méconnu*(Paris: Librairie A.-G. Nizet, 1988).
- Gérard, Pierre, *La Bataille de Nancy: son importance européenne*(Nancy: Édition J. M. Cuny-Librairie Lorraine, 1976).
- Huizinga, Johan, “L’État bourguignon, ses rapports avec la France et les origines d’une nationalité néerlandaise”, *Le Moyen Age*, t. 40(1930), t. 41(1931).
- La bataille de Nancy. 5 janvier 1477*, Exposition présentée au Palais ducal de Nancy, 5 janvier-11 avril 1977(Nancy: Musée historique lorraine, 1977).
- Minois, Georges, *Charles le Téméraire*(Paris: Perrin, 2015).
- Parisse, Michel, “IV. La Lorraine-Autour de dates exemplaires, douze historiens montrent le rôle d’autant de régions dans l’identité française”, *Le Monde*, le 18 juillet 1983.
- Petit-Dutaillies, Charles, *Histoire de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Révolution*, sous la direction de Ernest Lavisse, tome IV, deuxième partie: *Charles VII, Louis XI et les premières années de Charles VIII(1422-1492)*, présentation de Thierry Dutour, reproduction en fac-similé(Paris: Équateurs, 2010[1902]).
- Pirenne, Henri, *Histoire de Belgique*, 7 volumes(Bruxelles: Henri Lamertin, 1908-1948).
- Prat, Louis-Antoine, “The Sultan and Charles the Bold”, *Master Drawings*, Vol. 47, No. 4(Winter, 2009).
- Schnerb, Bertrand, *L’État bourguignon, 1363-1477*(Paris: Perrin, 2005[1999]).

Vaughan, Richard, *Charles the Bold. The Last Valois Duke of Burgundy* (Woodbridge, Suffolk, U.K.; Rochester, N.Y.: Boydell Press, 2002 [1973]).

_____, *Philip the Bold: the Formation of the Burgundian State*, revis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9).

〈Résumé〉

5 janvier 1477: la bataille de Nancy

— Écrire et commémorer un événement historique —

Hye-Min LEE

La bataille de Nancy, qui a lieu le 5 janvier 1477, est un événement historique dans lequel le duc de Bourgogne Charles le Hardi combattit contre René II, duc de Lorraine. Elle a eu lieu dan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complexes impliquant l'État bourguignon, le duché de Lorraine, la Suisse, la France et le Saint-Empire romain germanique. La bataille de Nancy et la mort de Charles le Téméraire ont été commémorées afin d'élever la gloire du vainqueur du jour, puis d'affermir la légitimité dynastique bourguignonne-habsbourgeoise aux Pays-Bas. Au cours du XIX^e et au début du XX^e siècle, la bataille de Nancy a été interprétée comme un des principaux points de repère historique de la formation des nations européennes et des états modernes. Aujourd'hui, elle est commémorée par l'extrême droite lorraine insistant sur l'expulsion des immigrés and le Frexit.

〈Abstract〉

5 January 1477: The Battle of Nancy

— Writing and Commemorating a Historic Event —

Hye-Min LEE

The Battle of Nancy, which occurred on January 5, 1477, is a historic event where Duke of Burgundy Charles the Bold fought against Duke of Lorraine René II. This battle took place within complex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nvolving Burgundian State, Duchy of Lorraine, Switzerland, France, and the Holy Roman Empire. The Battle of Nancy and the death of Charles the Bold were commemorated in order to uplift the glory of the victor of the day, and further to consolidate the legitimacy of Burgundian-Habsburg dynasty in the Low Countries. During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battle was interpreted as a major demarcating points of the formation of European nations and modern states. Today, it is commemorated by the French regional extreme right wing demanding for expulsion of immigrants and the Frexit.